

# 폭력을 재현하는 일상툰과 ‘공감’의 윤리학

박재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 1 ‘일상’과 ‘공감’이라는 일상툰의 문제적 지점
- 2 폭력의 경험과 주체의 일상: 「단지」와 「27-10」에서의 주체와 서사 정체성
  - 2.1 폭력의 경험과 기억, 경험주체와 서술주체의 상이한 수동성
  - 2.2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화하는 주체와 서사 정체성
- 3 독자의 공감 그리고 책임
  - 3.1 피해 경험의 공통성과 증언의 연쇄
  - 3.2 연대의 책임과 가능성의 공동체
- 4 나가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단지」와 「27-10」을 중심으로 일상의 폭력이 일상툰을 통해 재현되는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그간 일상툰 논의에서 자명한 사실로 여겨졌던 독자의 공감에 되묻는 데 있다. 일상툰에 대한 독법은 큰 틀에서 자기 서사로서의 ‘일상’이 지니는 의미와 독자의 ‘공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계기로 일상툰 연구에서는 일상의 자기 재현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감’은 ‘경험의 공통성’에 근거한, 자명한 것으로만 여겨져 왔다. 본론에서는 우선 「단지」와 「27-10」에서 폭력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폭력 피해 경험과 자기 서사는 어떤 연관을 맺는지 논의했다. 본론의 두 번째에서는 독자의 공감에 대해 논의했다. 이 논문은 우선 독자가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로 나뉜다는 데 주목했다. 경험을 공유하는 독자의 공감은 확인 행위와 발화 행위의 두 측면을 지닌 증언의 연쇄작용 속에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독자의 공감은 ‘동일화하지 않는’, 연대의 책임을 지닌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 논문의 논의가 ‘공감’의 윤리와 일상툰의 정치적 가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도였기를 기대한다.

국문핵심어: 「단지」, 「27-10」, 일상툰, 독자, 공감

## 1 ‘일상’과 ‘공감’이라는 일상툰의 문제적 지점

이 논문의 목적은 「단지」와 「27-10」을 중심으로 일상의 폭력이 일상툰을 통해 재현되는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그간 일상툰 논의에서 자명한 사실로 여겨졌던 독자의 공감을 되묻는 데 있다.

일상툰은<sup>1</sup> 웹툰이라는 대중적 서사체의 기원적 장르이자 웹툰의 특성과 밀

---

1 이 논문에서는 ‘일상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논자에 따라 ‘에세이툰’, ‘다이어리툰’, ‘생활툰’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기 재현적 웹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도 있

접한 관련이 있는 하위 장르로 이해되어왔다.<sup>2</sup> 이런 이유로 일상툰에 관한 연구는 웹툰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일상툰이 ‘서사적 독자성’과<sup>3</sup> ‘특유의 서사구조’를<sup>4</sup> 지닌 장르라는 데에 대체로 동의한다. 일상툰은 일상적 경험을 자전적이고 자기 재현적인 방식으로 서사화하는 장르로 여겨진다. 여기서 자기 재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경험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하나의 캐릭터로 작품에 등장하며 이 캐릭터가 실제 저자와 동일시된다는 의미이다. 캐릭터와 저자의 동일시 과정은 독자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동일시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동일시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이야기의 실제성과 진실성에 대한 독자의 믿음에 있다. 즉, 일상툰이라는 장르는 여타의 논픽션과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는 재현의 방식’이 중요한 장르인 것이다.<sup>5</sup> 달리 말해 일상툰의 서사적 특징은 ‘나’가 ‘나’의 경험을 직접 서술하고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독자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데 있다. 일상툰의 독자는 웹이라는 공간에서 이 진실된 이야기를 공유하는 적극적 독자로 상정되는데,<sup>6</sup> 이를 통해 ‘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

---

다. 용어에 따라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그 지시 대상이 거의 같다. 이 논문은 ‘일상툰’이라는 용어가 학계 내외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는 판단 아래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웹툰의 형성과 특성을 일상툰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류철균·이지영, 「형성기 한국 웹툰의 장르적 특질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44호, 우리문학회, 2014; 박인하, 「한국 웹툰의 변별적 특성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제11권 3호, 2015.
- 3 김유나, 『한국 일상툰의 풍자』,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21, 앞표지.
- 4 구자준, 「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 재현-웹툰 〈단지〉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5호, 한국극예술학회, 2019, 78쪽.
- 5 서은영, 「논픽션,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 『지금, 만화』 제13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10쪽.
- 6 웹에서 텍스트를 공유하는 적극적 독자에 관한 논의로는 박인하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박인하의 논의는 웹툰 형성기를 중심으로 웹툰의 변별적 특성에 관해 분석한 것이지만, 형성기의 웹툰이 주로 일상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 분석 대상 텍스트가 현재 일상툰으로 분류되는 「스노우캣」, 「광수생각」이라는 점, 박인하의 연구가 이후 다른 일상툰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인하의 웹툰에 관한 논의를 일상툰에 관한 논의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박인하, 「한국 웹툰의 변별적 특성 연구」, 『애

기로 확장되는데 독자의 공감의 확대의 기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나’의 모든 삶의 경험이 ‘일상’적인 것으로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일상툰의 정치성을 둘러싼 견해차와 연관된다. 일상툰의 정치성에 관한 논의는 분명 ‘페미니즘 리부트’의 자장 안에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전후해 10~30대의 젊은 여성을 주축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폭발했는데 이 리부트된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상성을 주요한 의제로 삼았다. 가정폭력, 불법촬영,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특별한 사건이 아닌 여성의 일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웹툰의 영역에서도 여성의 일상 그리고 여성이 마주하는 일상적 폭력을 다룬 서사물이 활발히 창작되기 시작했고, 대중 역시 이에 호응했다.<sup>7</sup> 이들 작품은 적극적으로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의미화되었으며<sup>8</sup> 「며느라기」와 같은 작품은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sup>9</sup>

초기 일상툰 연구는 일상툰의 비정치성, 비역사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에서 일상툰을 통해 재현된 ‘나’는 ‘사적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성을 잃지 않’은 존재이자<sup>10</sup> ‘한국인이거나 노동자이거나 하는 디테일을 벗겨낸 뒤’의 ‘보편적인

---

니메이션 연구』 제11권 3호, 2015.)

- 7 만화와 웹툰 영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작 목록은 이를 방증한다. 2016년에는 「여중생 A」, 「혼자를 그려내는 법」이 2017년에는 「단지」, 「며느라기」,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아 지갑놓고 나왔다」가 2018년에는 「그녀의 심청」, 「어쿠스틱 라이프」, 2019년에는 「정년이」, 2020년에는 「남남」이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7-10」은 2020년에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수상하는 부천만화대상 인기상을 받았다.
- 8 웹툰에서 여성의 일상과 여성의 겪는 폭력에 대한 재현은 당연히 이 시기 이전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로 인해 기억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스탄츠 이야기」가 「베스트도전」을 거쳐 네이버웹툰에 연재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의 일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 젠더적 관점이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없으며, 「단지」나 「며느라기」처럼 대중적 관심을 얻지 못했다.
- 9 웹툰 영역에서의 페미니즘 리부트와 여성 서사의 흐름은 위근우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위근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웹툰의 여성 서사」, 『지금, 만화』 제1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 10 류철균·이지영, 「자기 재현적 웹툰의 주제 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130쪽.

간'으로,<sup>11</sup> '일상'은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사적 문제', '정치적 맥락에서 탈피된' 것, '총체성을 종용하는 외부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내가 살아가고 느끼는 나의 주변과 경험'으로<sup>12</sup> 해석된다. 하지만 공/사를 나누고, 사적 영역의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를 비정치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설명력을 잃게 된다. '사적' '일상' 즉 '내가 살아가고 느끼는 나의 주변과 경험'이 '나'의 사회구조적 위치 특히 젠더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구성물임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sup>13</sup> 일상툰 연구에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다.<sup>14</sup> 예를 들어 김건형은 「미쳐 날뛰는 생활툰」과 「아기 낳는 만화」 분석을 통해 '일상툰의 '나'를 누구나 이입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의 개인'으로 보는 것은 "보편적인 남성 청년의 자조적 잉여세대론을 함의"하는 것임을 밝혔고,<sup>15</sup> 구자준은 「단지」와 「며느라기」를 '우리의 일상과 가족이야말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참여할 정치적 실천 역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은폐된 사실을 드러내고, '지금까지의 일상툰이 그려내는 '일상'의 모습 혹은 우리가 떠올리던 일상툰의 범주가 지나치게 협소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묻고, '우리가 그동안 누구의 시선으로 일상을 그려내고 읽어왔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으로 읽어냈다.<sup>16,17</sup>

11 위의 글, 131쪽.

12 위의 글, 133쪽.

13 여기서 젠더의 영향을 강조한 것은 젠더가 세대, 계급 등에 비해 '나'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과 '일상툰'에 대한 재고가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14 이 논문은 (비)정치성이나 젠더적 특성을 일상툰에 내재한 특성으로 보지 않는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전의 일상툰은 비정치적이고 이후의 일상툰은 정치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비)정치적이고 (비)젠더적인 것은 일상툰이라는 장르 혹은 일상툰에 해당하는 특정한 작품 그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일 듯하다. 예를 들어 그간 젠더적, 정치적 차원에서 독해 되지 않았던 「남이 사는 이야기」, 「나이스진타임」 등의 작품도 젠더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읽힐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은진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은진은 「남이 사는 이야기」와 「나이스진타임」, 「대학일기」, 「모쪼의 일기」를 젠더적 관점에서 읽어냈다. 은진, 「생활툰 속 여성의 일상이 보여주는 것들」, 『일다』, 2021. <https://www.ildaro.com/9023> (최종 접속일: 2022.12.25.)

15 김건형, 「일상툰의 서사 문법과 자기 재현이라는 전략-여성 일상툰의 정치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8, 142-143쪽.

16 구자준, 앞의 글, 95쪽.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연구는 이처럼 ‘일상’으로 포착되는 경험과 일상툰의 ‘나’가 지니는 정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이전 연구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보편성’을 담지한 ‘사적 영역의 개인’이라는 ‘나’는 타자화된 ‘나’들을 배제하는 가운데 성립된 것임이 밝혀졌고, 소외된 ‘나’, 타자화된 ‘나’의 자기 재현에서 일상툰의 정치적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독자의 공감만큼은 이들 연구에서도 자명한 것으로 남아있었다. 일상툰의 ‘나’를 사적 영역의 개인으로 보는 연구는 독자의 공감을 ‘나’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연구는 앞서 말했듯 ‘나’의 ‘보편성’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나’와 ‘나’의 ‘일상’이 보편적이지 않다면, ‘일상’이 젠더와 세대, 계급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장이라면, 독자의 공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단지」, 「아기 낳는 만화」, 「며느라기」 등 ‘여성’으로서의 일상을 다루는 일상툰을 보고 공감하는 독자는 누구이며 이때의 공감은 어떤 공감인가?

‘페미니즘 리부트’의 영향으로 여러 다른 ‘나’들의 일상이 재현되었고 일상 재현이 지닌 정치성이 적극적으로 해석되었지만, 일상툰에 관한 연구에서 독자의 공감은 당연시될 뿐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앞선 논의에서 공감은 일상툰에 그려진 ‘나’의 일상이 곧 독자의 그것이기도 하다는 동일성의 논리에 정초한 것처럼 보인다. 달리 말해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이유는 유사한 경험의 공유로 설명되는 듯하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자신의 일상을 재현하는 것이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sup>18</sup> 타자화된 ‘나’의 자기 재현이 지닌 정치적 가능성을 한정하고 ‘나’와 ‘나’의 독자들의 위치를 계토화할 위험성을 지닌다. 동일

---

17 한편, 웹툰 비평가 위근우는 한 칼럼에서 「혼자를 기르는 법」에 대해 “〈혼자를 기르는 법〉이 특별한 건, 과거 ‘일상툰’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별적 개성을 지닌 ‘나’에 대한 것이었던 것과 달리 20대라는 세대적 측면과 여성이라는 젠더적 측면, 그리고 서울이라는 공간적 측면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했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위근우, 앞의 글, 15-16쪽.) ‘일상’과 일상툰의 ‘나’를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여성 창작자가 페미니즘을 접하고 받아들여 작품에 이를 녹여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 역시 연구의 영역에 페미니즘적 관점을 도입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18 김건형, 앞의 글, 122쪽.

성에 기반한 공감의 논리는 동일성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를 배제하고 독자층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오카 마리의 말을 빌려온다. “타자에 대한 ‘공감’은 자명하게 정립될 수 없다.”<sup>19</sup> “타자에 대한 ‘공감’이 자명하게 정립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무슨 까닭으로 ‘공감’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공감’이란 무엇인가.”<sup>20</sup>

이러한 문제는 특히 폭력을 재현한 일상툰에서 주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는 폭력의 경험을 재현한 일상툰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야기로 전유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일상툰에서 독자의 공감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단지」와 「27-10」은 모두 가정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벌어진 폭력을 폭력 피해자의 시점에서 재현한 웹툰으로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이들 작품이 얻은 대중적 인기를 경험을 공유하는 독자의 공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성이 마주한 폭력의 일상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서 언급한 동일성의 논리가 지닌 위험성을 피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지」와 「27-10」에 재현된 폭력의 경험과 주체의 양상을 살피고(2장), 저자와 독자, 독자와 독자 사이의 차이와 관계를 분석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공감을 살필 것이다.(3장) ‘공감’의 윤리를 되물어야만 일상툰의 정치적 가능성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2 폭력의 경험과 주체의 일상: 「단지」와 「27-10」에서의 주체와 서사 정체성

2장에서는 「단지」와 「27-10」를 폭력의 경험이 남긴 상흔을 언어화하고 의미화하고 이야기화함으로써 서사 정체성을 지닌 주체로 나아가는 ‘나’의 이야기로 해석할 것이다. 작품의 분석을 위해 조운숙의 연구 「자전적 텍스트로서의 만화유형 연구」를<sup>21</sup> 참조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조운숙은 ‘자전적 만화가 가진 특성들을

19 오카 마리,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역,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2016, 210쪽.

20 위의 책, 212쪽.

21 조운숙, 「자전적 텍스트로서의 만화유형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4권 2호, 한국애니

보다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sup>22</sup> 텍스트 내부에서 찾고자 한다. 조운숙이 제시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첫 번째 기준은 텍스트를 통해 구성되는 자아와 두 번째 기준은 생애사적 시간과 관련된다. 이 논문은 이중 두 번째 기준에 주목한다. 조운숙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작가 자신의 삶'과 '작가가 그것을 서술하는 시점'의 간극을 '시간적 격차'라 명명하고 격차가 작은 경우를 일기와 유사한 '현재성'에 중심을 둔 만화로, 반대의 경우를 '사회역사적 맥락에 닿아있는 삶의 보다 큰 사건들'을 담는 '역사성'을 지닌 만화로 분류한다.<sup>23</sup> 이러한 '시간적 격차'의 전제는 '경험적 주체와 서술적 주체의 분리'이다. 이러한 분리는 조운숙의 말대로 '자신의 경험을 글쓰기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이다.<sup>24</sup>

이 논문도 이러한 분리에 주목한다. 「단지」와 「27-10」에서 이러한 분리는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폭력을 경험한 주체는 어린이(「단지」)나 교복을 입은 학생(「27-10」)의 이미지로 재현되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서술하는 주체는 성인으로 형상화된다.<sup>25</sup> 두 작품의 단행본 표지는 상징적이다. 표지에는 이 분

---

메이션학회, 2018.

22 위의 글, 197쪽.

23 한편 조운숙은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해 '사적인 범위의 자기 탐구에 몰입'하는 자아가 나타나는 경우를 '개인적 자아'의 만화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립'된 자아를 '사회적 자아'의 만화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운숙은 개인적 자아와 현재성이 결합된 장르를 '일상툰', 사회적 자아와 현재성이 결합된 장르를 '취미취향 만화', 개인적 자아와 역사성이 결합된 장르를 '자(서)전 만화', 사회적 자아와 역사성이 결합된 장르를 '르포만화'로 분류했는데 이는 개인/사회, 미시/거시라는 이분법 구도를 바탕으로 둔 틀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또 이 틀을 적용하면 일상툰을 매우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생산되는 일상툰의 규모와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분류는 현실적 설명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일상툰을 웹에 기반한 자전적 텍스트로서의 만화라는 큰 범주로 놓고 '일기적 일상툰', '취미취향 일상툰', '자서전적 일상툰', '르포적 일상툰'과 같은 세부 장르를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24 경험주체와 서술주체의 분리와 간극에 주목하는 또 다른 연구에는 한혜원·김유나의 연구와 김유나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이 간극을 통해 아이러니와 풍자가 성립된다고 보며 이를 일상툰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본다.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툰의 아이러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3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김유나, 『한국 일상툰의 풍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25 서술주체가 성인이라는 것은 작품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이미지만을 보고 할



리된 두 주체가 등장한다.(그림 1) 미성년기(경험주체)와 성년기(서술주체)라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논문은 경험과 서술의 시간적 격차보다는 경험주체와 서술주체가 폭력의 경험과 맺는 관계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그림 1. 「단지」와 「27-10」의 표지

## 2.1 폭력의 경험과 기억, 경험주체와 서술주체의 상이한 수동성

「단지」와 「27-10」은 모두 집 혹은 가정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겪은 폭력의 경험을 다룬 웹툰이다.<sup>26</sup> 「단지」가 아버지의 성폭력을 포함해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가해진 성차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다룬다면 「27-10」은 아버지에 의한 강간과 물리적 폭력을 주로 다룬다. 이들 작품에

---

수 있는 판단은 아니다. 이미지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험주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주체가 형상화된다는 점과 이때의 형상이 경험주체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성인이 된 이후 출가하는 것은 두 작품 모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된다. 폭력의 공간이었던 집으로부터의 벗어남은 서술주체가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26** 「단지」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레진코믹스에 연재되었고 총 46화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레진코믹스가 아닌 카카오 웹툰에서 제공되고 있다. (2022년 11월 13일 기준) 「27-10」은 네이버 웹툰에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연재되었고, 총 30화 분량의 작품이다. 이 작품의 경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웹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단행본이 2권 분량으로 출간되었다. 이 논문에 제시된 작품 이미지들은 단행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서 주체는 모두 폭력 앞에 수동적이고 무력한 주체로 그려진다. 하지만 무력화되는 방식은 같지 않다. 경험주체가 폭력의 경험이라는 사건 그 자체 안에 무력하게 수동적으로 놓여 있다면, 서술주체는 폭력의 기억 때문에 무력한 주체가 된다.

경험주체가 폭력에 대해 수동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 폭력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험주체는 이에 대해 철저히 무력하며 저항하지 못한다. 「단지」의 ‘단지’는 ‘엄마의 불합리함에 제대로 반론하지 못했고’, ‘오빠의 거친 언행에 한번도 대들 생각을 못했다’.<sup>27</sup> 「27-10」의 ‘자기 방문을 잠그지 못했던’<sup>28</sup> ‘그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는 것 말고는 밤마다 찾아오는 부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sup>29</sup> 그리고 ‘단지’와 ‘그녀’ 모두 아버지 앞에서 먹기 싫은 밥을 ‘몸을 떨며 끝까지’ ‘꾸역꾸역’ 먹었다.<sup>30</sup> 경험주체는 폭력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먹는 행위조차 수동적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 폭력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달리 말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경험주체는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해당 시점에서 경험주체는 자신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 경험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즉, 경험주체는 인식주체로서의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고 구성하는 것은 서술주체이다. 그 결과 사건이 폭력으로 구성되는 사후적 과정은 그것이 폭력이었음을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자각을 동반한다.<sup>31</sup> (그림 2)

폭력은 경험주체 뿐만 아니라 서술주체도 수동적 주체로 만든다. 하지만 경험주체가 무력한 주체, 수동적 주체가 되는 방식과 서술주체가 무력화되는 방식은 다르다. 폭력이 서술주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은 폭력의 기억을 통해서다. 기억은 주체의 의지나 욕구, 욕망과 관계없이 찾아온다. 「단지」와 「27-10」에서 폭력의 영향이 비나 폭풍, 스콜 같은 기상현상으로 재현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주체는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가기를 기다

27 단지, 『단지 1』, 레진코믹스, 2015, 134쪽.

28 AJS, 『27-10 ONE』, 위즈덤하우스, 2019, 54쪽.

29 위의 책, 51쪽.

30 단지, 앞의 책, 135쪽; AJS, 앞의 책, 252쪽.

31 단지, 앞의 책, 133쪽; AJS, 앞의 책, 101-102쪽.



그림 2. 폭력의 사후적 인지



그림 3. 서술주체의 수동성

리는 것뿐이다. 「단지」와 「27-10」에서 경험주체가 폭력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주체라면 서술주체는 이를 일상의 시간 속에서 서술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기억이 서술주체의 일상에 관여하는 양상은 이중적이다. 일상의 구성원리를 반복에 기반한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에서 찾을 때 폭력의 기억은 반복적으로 서술주체를 찾아온다는 점에서 서술주체의 일상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상을 붕괴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폭력의 기억이 상례적으로 일상을 습격하는 일상 속에서 서술주체는 미래를 쉽사리 예측하거나 기획할 수 없는 수동적 주체의 자리에 놓인다.(그림 3)<sup>32</sup>

## 2.2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화하는 주체와 서사 정체성

폭력의 경험 앞에 주체는 수동적이기만 한가? 서술주체는 경험주체와 달리 폭력의 경험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주체이다. 다르게 말하면, 서술주체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인식적 거리를 확보한 주체이다. 폭력 안에서 몰랐고 혼란스러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험주체와는 다르게 서술주체는 기억 앞에 무력한 주체이지만, 동시에 그 무력감을 무력감으로서 형상화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단지」와 「27-10」에서 서술주체의 주체성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단지」와 「27-10」의 서술주체가 끊임없이 쓰고 말하는 주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단지」와 「27-10」에서 서술주체에게 일상은 폭력의 기억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침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폭력의 경험을 서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서술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때의 언어화는 쓰기와 말하기 모두를 동반한다. 우선, 「단지」와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의 형태로 쓴다. 그리고 이들은 상담이라는 장치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꺼내어 말한다.<sup>33</sup> 이때 일기는 과거의 기록으로 언어화 행위의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 서술주체는 일기를 읽고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재구성한다. 즉, 서술주체는 폭력의 기억 앞에 무력한 주체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기록을 읽고 이를 재구성하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언어화는 이야기화를 지향한다. 두 작품 모두에서 상담의 끝이 작품의 결말부에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sup>34</sup> 상담을 끝마친 후 서술주체는 자신의 이야기 쓰기를 일단락한다.

---

32 단지, 앞의 책, 147쪽; AJS, 앞의 책, 204쪽; AJS, 『27-10 TWO』, 위즈덤하우스, 2019, 193-194쪽.

33 「단지」에서 언어화 행위가 ‘일기 쓰기-작품 창작-일기 읽기-상담을 통한 말하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27-10」에서는 ‘일기 쓰기-인터넷 익명 게시글-친구에게 말하기-상담을 통한 말하기-일기 읽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양상은 다소 다르다.

34 「단지」의 경우 28화에 「27-10」의 경우 28화와 29회에서 상담이 마무리된다. 두 작품은 각각 46화, 30화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도 「단지」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시즌 1은 총 30화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화로 구성된 시즌 2는 독자의 사연을 받아 그린 것이다.

“경험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의미화될 수 있다.”<sup>35</sup>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 있는 경험의 투명한 반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경험은 선별되어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sup>36</sup> ‘나의 경험’이 ‘하나의 주제를 가진 줄거리로 엮’여 이야기가 될 때 서사 정체성이 획득된다.<sup>37</sup> 서사 정체성은 결국 ‘말하는 사람의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이며, 그가 자기 삶을 어떻게 주제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성적 행위의 결과’이다.<sup>38 39</sup>

「단지」와 「27-10」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서술주체의 말하고 쓰는 행위는 자신의 경험을 선별하고 구성하는 행위, 즉 서사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며, 사건의 되새김질이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야기를 통해 서술주체는 폭력의 경험을 자기 서사 안에서 ‘과거의 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sup>40</sup>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현재를 살며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알려준다.’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보존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의 전망을 하나의 주제로 자기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나

35 김애령, 『듣기의 윤리』, 봄날의박씨, 2020, 52쪽.

36 위의 책, 52쪽.

37 위의 책, 76쪽.

38 위의 책, 79쪽.

39 서사 정체성은 이처럼 경험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해석적, 구성적 행위에 기반한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의 진실성은 쉽게 의심받는다. 하지만 김애령이 리코르의 말을 빌려 논의했듯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실증주의적 의미에서의 ‘사실’(fact)은 아님을 기억해야’ 하며, “서사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의 실증성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말하는 개인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다. 이야기는 실증적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의미를 구성한다.” (위의 책, 78쪽) 단지를 두고 ‘작가가 너무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가공한 이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작품을 잘못 읽은 것일 뿐 아니라 그 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로 가공할 서사 편집권을 지니지 못했던 타자로서의 여성의 입을 막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단지(웹툰)’, 나무위키, [https://namu.wiki/w/단지\(웹툰\)](https://namu.wiki/w/단지(웹툰)), 최종 접속일: 2022.11.13.)

40 「27-10」의 말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완전히 과거의 일로 만들었다.” (AJS, 앞의 책, 268쪽.)

는 ‘내 인생의 주인공, 삶의 주인, 인격적 주체’가 된다.<sup>41</sup> 작품이 진행되면서 서술 주체는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자신의 현재 감정을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sup>42</sup> 서사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해낸 서술주체는 작품의 마지막 화에 이르면 가족과의 화해가 아닌 단절을 단호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주체(「단지」), 그리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도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27-10」)가 된다.

### 3 독자의 공감 그리고 책임

다른 일상툰처럼 「단지」와 「27-10」에서도 독자의 공감은 중요하다. 특히 「단지」와 「27-10」 같은 작품에서 독자의 공감은 더 중요할지 모른다. 독자의 공감은 「단지」와 「27-10」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툰에 관한 논의에서 그간 가정해온 것처럼 공감이 경험의 공통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단지」와 「27-10」에서 독자의 공감은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것이 된다.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독자의 공감, 여기에 문제는 없을까.

독자의 공감을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첫 번째 문제는 ‘피해 경험’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다. ‘피해 경험’을 부

41 김애령, 앞의 책, 78-79쪽.

42 물론 이 양상은 「단지」와 「27-10」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단지」에서 ‘단지’는 작품 초중반부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물어보는 상담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27-10」에서는 화를 내는 행위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그녀’에게 화를 내는 행위는 처음에는 아버지와 연관된 행위로 기피되거나 억압되다가 갑작스럽게 표출되고 이것이 자기혐오로 이어지는 행위였다. 하지만 상담 등을 통해 서사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행위는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행위로 바뀌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화’라는 감정을 되찾게 된다. 이외에도 「단지」와 「27-10」에는 폭력의 재현이나 일상 재현, 친밀한 관계 재현 등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두 작품의 유사성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각하는 읽기 방식은 ‘단지’와 ‘그녀’ 애써 구축한 서사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 경험’에 관한 기존의 지배적 서사가 이들의 이야기에 덧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단지」나 「27-10」의 이야기는 ‘단지’나 ‘그녀’가 고통의 과정 끝에 폭력의 경험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폭력 경험의 재현 혹은 또 다른 하나의 피해 경험 고발로만 읽히게 될 것이다. ‘단지’와 ‘그녀’에게 피해자 정체성이 강하게 부여될 때 그리고 이 피해자 정체성이 기존의 피해자 서사와 결합할 때 서사 정체성은 위협받는다.

두 번째, ‘억압받은 경험의 공통성에 천착하는 것’은 독자와 저자, ‘단지’, ‘그녀’ 모두를 ‘피해라는 현실에 정박시키는 것’일 수 있다.<sup>43</sup> 나아가 이러한 논리는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서 비껴있는 독자에게 공감이나 연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면죄부로 작동할 수도 있다. 피해 경험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타자화하는 논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차별과는 다른 이유로 편애와 차별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나무위키의 ‘단지(웹툰)’ 항목에서 ‘비판’이라는 소제 아래 있는 이 문장은<sup>44</sup> 공감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며 공감하는 독자의 범위를 협소화한다. 그리고 「단지」가 지닌 정치성을 한정한다. ‘「단지」에 공감하는 독자는 (다른 원인이 아닌) 성차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뿐이다’라는 논리는 ‘「단지」는 성차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텍스트이다’라는 논리에서 멀리 있지 않다.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해 공감을 말하는 논리로는 이런 ‘비판’을 가장한 혐오적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단지」와 「27-10」은 폭력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는 텍스트이며 ‘단지’나 ‘그녀’로 호명될 수 있는,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많은 독자들이 이 텍스트에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독자의 공감에 대해 기존과는 다르게 논의할 수 있을까.

43 권김현영, 「들어가는 글-우리는 피해자라는 역할을 거부한다」,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9쪽.

44 ‘단지(웹툰)’, 나무위키, [https://namu.wiki/w/단지\(웹툰\)](https://namu.wiki/w/단지(웹툰)). (최종 접속일: 2022.11.14.)



### 3.1 피해 경험의 공통성과 증언의 연쇄

「단지」와 「27-10」은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근거해 독자를 호명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단지」에서 ‘단지’가 ‘기획의도를 펼쳐’보는 장면에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독자들이 본 만화를 접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문장이 나온다.<sup>45</sup> 또 30화로 끝난 「단지」 시즌 1은 16화로 구성된, 총 9명의 독자 사연으로<sup>46</sup> 꾸러진 시즌 2로 이어지는데 시즌 2의 제목은 ‘인터뷰-또 다른 단지, 독자들의 이야기’이다. 「27-10」의 경우 단행본과 함께 제공된 엽서, 그리고 단행본에 실린 작가의 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엽서에는 “이 만화를 읽고 공감해야 했던 수많은 ‘그녀’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라고<sup>47</sup>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만화를 읽고 공감해야 했던 수많은 ‘그녀’들이 너무 힘들지 않고 원하는 길로 나아가길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라는<sup>48</sup> 단행본 작가의 말 마지막 문장도 엽서와 마찬가지로 ‘공감해야 했던 수많은 ‘그녀’들’을 호명한다. 이러한 호명의 의미를 살피는 것에서 이 절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단지’와 ‘공감해야 했던 수많은 ‘그녀’’라는 호명은 분명 피해 경험의 공통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명은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근거한 공감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위로, 이것은 「단지」와 「27-10」이 지닌 의의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호명의 의미는 보다 섬세하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호명은 우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외침이다. 혼자

45 단지, 『단지 2』, 레진코믹스, 2017, 116쪽. 강조는 인용자.

46 임소담(시즌 2, 1-3화), 고재훈(시즌 2, 4-6화), 윤바다(시즌 2, 7-9화), 광현주(시즌 2, 10-12화), 노토리, 구슬, 실버제로, 하서리(시즌 2, 13화), 김초연(시즌 2, 15-16화). 16화는 ‘단지’가 「단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가족인 남동생과 만나 나누는 대화이다. 독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47 이와 같은 메시지는 엽서 뒷면에 적혀 있다. 엽서는 총 2종인데 각 엽서의 앞면은 단행본 표지와 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다. ‘작가 친필 응원 메시지 엽서’는 단행본 1, 2권 세트 구매 시 제공되는 것이다. 관련해 책 구매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09477681>

48 AJS, 앞의 책, 4쪽. (2권에도 같은 작가의 말이 같은 쪽에 수록되어 있음.)



아니라는 확인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위로’나 ‘구원’이 될 수 있다. 질병을 폭력의 은유로 사유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메이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몸 하나만 남게 되는 세계의 수축이 아프다는 경험이라면, 이것 알고 있는 내 몸 바깥 누군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수축에 맞서는 힘이다. 알아주는 것은 세계와 이어지는 끈, 또는 산산조각 나려는 세계를 간신히 붙들어 매는 가느다란 끈이 될 수 있으며 고통을 줄여준다(고난의 시기에 신을 만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남들이 모르는 내 고통을 아는 이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며, 신이 알아주기에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리고 아픈 몸은 이신전신(以身傳身), ‘알아줌’의 기반이 되곤 한다.

(…) 구원이라는 단어는 거창하지만 위기의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런 순간을 작은 구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아픈 이들이 남긴 기록에서 내가 찾고 만났던 것도 결국 이런 작은 구원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sup>49</sup>

위로, 혹은 메이의 말에 따르면 ‘작은 구원’은 이처럼 또 다른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또 다른 존재’는 ‘피해 경험의 공통성’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위로가 이 확인의 행위,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확인의 행위는 위로의 성격을 밝힐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메이는 왜 위로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위로받았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가. 공감이란 확인 행위와 발화 행위라는 양면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 그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위로’, ‘공감’, ‘위로나 공감’ 혹은 ‘위로와 공감’ 같은 말들로 ‘공감’의 의미를 단순화하고 발화 행위의 의미를 축소해온 것은 아닐까.

---

49 메이, 「‘병자 클럽’의 독서」,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봄날의책, 2020, 158-159쪽.

메이가 다른 이의 기록을 읽고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그 자신이 자신의 질병 경험을 증언한 기록자인 것처럼 ‘단지’와 ‘그녀’도 마찬가지이다. ‘단지’와 ‘그녀’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로 엮어낸 일종의 기록자이지만, 동시에 다른 이의 피해 경험을 듣거나 읽고 위로받은 독자이기도 하다. 「단지」와 「27-10」에는 ‘단지’와 ‘그녀’가 다른 이의 이야기로부터 위로받고 공감한 순간이 기입되어 있다.<sup>50</sup> (그림 4)



그림 4. 위로의 순간

‘단지’나 ‘그녀’의 증언과 호명에 대응되는 또 다른 피해 경험에 대한 증언이 텍스트에 기입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장면은 다른 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발화를 가능하게 한 힘이었음을 보여 준다.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기인한 ‘공감’은 피해 경험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행위가 위로로 이어지고 이 위로가 다시 힘이 되어 발화를 촉발하는 동적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쇄는 「단지」나 「27-10」을 고발이나 고백의 이야기로 읽는 것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sup>51</sup> 고발과 고백은 특정한 경험을 발화하는 일회적 행위이다. ‘단지’나 ‘그녀’의 이야기는 자기고백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 작품에서 발화는 연쇄의 고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0 그림 4는 단지, 앞의 책, 103-104쪽. AJS, 앞의 책, 206-208쪽 및 251-252쪽도 참조할 수 있다.

51 「단지」의 자기고백적 성격을 강조한 글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박인하, 「[만화로 본 세상]〈단지〉-상처받은 여성이 웹툰의 주인공인 이유」, 『주간경향』 1138호, 2015.08.1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1508041608101](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1508041608101) (최종 접속일: 2022.12.25.)

앞선 발화가 ‘단지’와 ‘그녀’의 발화를 가능하게 했고, 이들의 발화는 호명의 형식으로 다시 또 다른 이의 발화를 요청했다.

「단지」와 「27-10」은 고백이 아닌 증언으로 읽혀야 한다. 이들 작품을 증언으로 읽는다는 것은 몇 가지를 함의한다. 우선, 증언은 일회적이지 않다. 증언은 듣는 이에게 적극적 행위를 요청하는 연쇄작용이다. 두 번째, 증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맞닿은 행위이다. 다시 질병에 관한 논의를 빌려오려고 한다. 아서 프랭크는 ‘암을 앓고 있거나 회복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생존자’ 대신 ‘목격자’를 택한다. 아서 프랭크에게 ‘목격자’는 ‘증언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의 서술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생존은 생존하기를 지속하는 것 외에는 어떤 특정한 책임도 포함하지 않는다. 목격자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책임을 가정한 다. 목격자는 일반적으로 인지되지 않거나 억압되는 진실에 대해 증언을 제공한다. 질병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목격자이다. 그들은 질병을 도덕적 책임으로 전환시킨다.<sup>52</sup> (강조는 인용자)

아서 프랭크가 말한 ‘질병’을 ‘피해 경험’으로 바꿔 읽는다고 할 때 이것이 ‘도덕적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증언’이 피해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발화이며 이것이 ‘윤리-정치적 결단’임을<sup>53</sup> 의미할 것이다. 증언의 연쇄는 ‘피해 경험의 공통성’을 ‘공유되는 경험’으로 바꾼다. 이러한 연쇄 속에 공유되는 경험의 크기는 커진다.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를 읽고 메이는 “질병에서 상실 뿐 아니라 기회 또한 발견한 아서 프랭크가 자신이 미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내 경험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확신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나도 이 책이 필요했다”라고<sup>54</sup> 적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독자로서의 메이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메이

---

52 아서 프랭크, 서은경 역,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265쪽.

53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63쪽.

54 메이, 앞의 글, 160쪽.

가 다시 누군가에게 아서 프랭크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아서 프랭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의 말처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유된 경험의 원은 넓어진다.”<sup>55</sup>

이 절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단지」에서 ‘단지’가 밝힌 기획의도와 독자 호명, 그리고 「27-10」 저자의 ‘그녀들’ 호명은 단순히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호명은 ‘단지’와 ‘그녀’가 다른 이의 경험을 공유받은 순간과 함께 읽혀야만 한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피해 경험의 공통성이 증언의 출발점이 되고, 증언과 또 다른 증언이 만나 공유된 경험의 크기를 키우는 연쇄작용을 발견할 수 있다. ‘피해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독자의 공감은 자명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위로를 넘어서 증언의 연쇄라는 동적인 과정으로, 피해 경험이 개별적인 것에서 벗어나 공유되는 경험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언의 연쇄작용의 기저에 놓인 책임 의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책임 의식은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근거가 된다.<sup>56</sup> 다시 말해 ‘단지’와 ‘그녀’를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다른 이의 피해 경험 증언의 청자로 이해하는 읽기 방식, 이들의 발화—증언과 호명—를 증언의 연쇄작용으로 파악하는 독해야말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리에 가두지 않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방식이 아닐까.

한편,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목격(=증언, 인용자)에 대해 거리를 둔 구경꾼(spectators)일 수 없다.’<sup>57</sup> “증언은 타자들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에 연루시킨다.”<sup>58</sup> 독자 모두를 ‘증언’의 ‘연루’자로 만든다는 것, 이것이 「단지」와 「27-10」을 증언으로 읽는다는 것의 세 번째 함의이다. 다만, 피해 경험을 직접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독자에게는 다른 방식의 공감이 요청되는 듯하다.

---

55 아서 프랭크, 앞의 책, 27쪽.

56 피해자의 증언과 증언의 책임을 말하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한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김현영, 앞의 글, 67-70쪽을 참조할 수 있다.

57 아서 프랭크, 앞의 책, 274쪽.

58 위의 책, 275쪽.

### 3.2 연대의 책임과 가능성의 공동체

‘단지’는 단행본 1권의 마지막 세 쪽에 걸쳐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 책을 보여주며 ‘나도 애랑 비슷해’라고 한다면 그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 주길. 이 책이 너의 아픔을 표현하고 위로 받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감히! 바랄게.”<sup>59</sup> (그림 5) 이러한 발화는 ‘당신’과 ‘너’의 차이를 가시화한다. 피해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는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텍스트에 연루된다. ‘당신’도 ‘단지’를 보고 공감하는 독자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당신’의 공감은 어떤 공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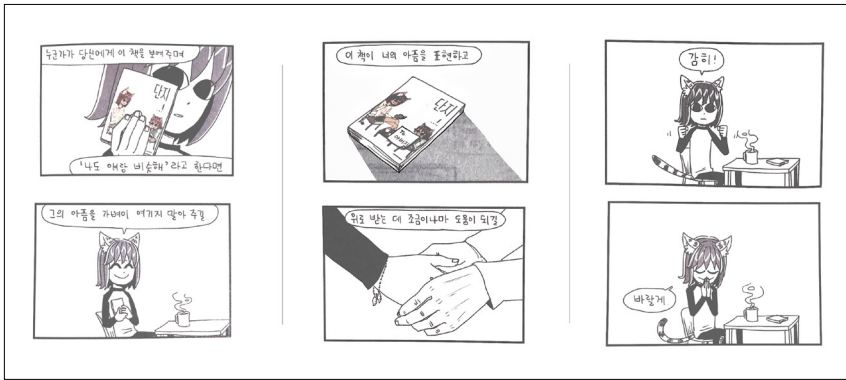


그림 5. ‘당신’으로서의 독자와 ‘너’로서의 독자

일본인 저자 오카 마리는 그의 책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에서 ‘목적-증인 되기: 사건의 분유와 ‘공감’의 정치학’이라는 제목 아래 “‘위안부’였던 여성의 증언’과 그 증언에 담긴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일본인’ ‘여성’ 저자로서의 공감을 논의한 바 있다. 오카 마리의 논의는 일상툰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에 관한 논의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 타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위안부’

59 단지, 앞의 책, 213-215쪽.

였던 여성들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공감’이 어떠한 ‘공감’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당사자로서 같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사건을 체험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타자의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은 타자가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을 공유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상상적으로 동일화할 때에만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타자의 ‘공감’을 촉구하기 위해, 동일화를 손쉽게 하려는 담론 전략이 선택될 때-사건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순수함과 비참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일례인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에 동일화하려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알맞게 구성된다.<sup>60</sup> (강조는 인용자)

오카 마리에 따르면, ‘타자가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나’와 ‘피해자’를 ‘상상적으로 동일화할 때에만 유일하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적 동일화는 피해자를 타자화할 위험을 지닌다. 타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그 고통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가 ‘당신’에게 ‘그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때 이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상상적 동일화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한정된 경험에 기반해 ‘단지’의 고통을 상상적으로 동일화한 결과로 이해된다. ‘공감’의 촉구를 위해 ‘피해자의 순수함과 비참함을 강조’하는 것과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으로 인한 감정의 동요를 동일화를 통해 처리하는, 같은 원리에 기반한 다른 방식인 것처럼 보인다.

오카 마리는 ‘동일화에 의한 ‘공감’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공감’의 말’을 폭력에 대한 ‘나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에서 길어 낸다. 그는 타자의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오는 고통과 무력함을 이야기한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다른 ‘공감’은 이러한 원리에서 도출된다. 이를 「단지」와 「27-10」에 대한 논의에 적용하면, ‘단지’와 ‘그녀’에 대한

---

60 오카 마리, 앞의 책, 214-215쪽.

‘당신’의 ‘공감’은 이들의 겪은 폭력의 경험과 고통에 대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된다.

무력함에 기반한 공감은 증언을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들의 증언이 없다면, 무력함은 생겨나지 않는다.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도 경험을 공유하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목격-증언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이다. 독자가 지닌 이때의 책임을 연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의 연대는 어떤 정치적 가능성을 지닌 것인가. 최초의 증언은 경험에서 발화될 수밖에 없다. 경험을 공유하는 자들은 증언의 연쇄 속에 ‘공유되는’ 경험의 크기를 키운다. 한편 연대는 ‘공유될’ 경험의 가능성을 높인다. 증언은 용기 없이 가능하지 않다. 박희정은 「27-10」에 관한 칼럼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웹툰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띈다는 점은 시대의 변화상을 드러낸다”라고 적었다.<sup>61</sup> 이들 작품을 ‘눈에 띄게’ 만드는 것, ‘시대의 변화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연대의 힘이다. 박희정의 이 칼럼 제목은 ‘〈27-10〉 친족 성폭력 피해자도 말할 용기를 얻었다’이다. 말할 용기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하여 공유될 경험의 가능성의 크기를 키우는 일 그것이 연대의 책임을 진 독자들에게 주어진 몫일 것이다.

#### 4 나가는 말

이 논문은 일상툰 읽기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고 그 정치성을 강조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여성으로서의 폭력 피해 경험이 재현된 「단지」와 「27-10」를 다시 읽어보고자 했다.

일상툰에 대한 독법은 큰 틀에서 자기 서사로서의 ‘일상’이 지니는 의미와 자기 서사에 대한 독자의 ‘공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 해당할 1장에서는 ‘일상’과 ‘공감’이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

61 박희정, 「[만화로 본 세상]〈27-10〉 친족 성폭력 피해자도 말할 용기를 얻었다」, 『주간경향』 1323호, 2019.04.22.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4160932131&code=116> (최종 접속일: 2022.12.25.)



왔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일상툰 연구에서 ‘일상’의 의미는 개인적이어서 비정치적인 것에서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동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감’은 ‘경험의 공통성’에 근거한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2장은 「단지」와 「27-10」의 서사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장에서는 폭력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폭력 경험의 자기 서사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했다. 3장은 이 논문의 가장 주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텐데 여기서는 일상툰에서의 ‘공감’을 세밀하게 논의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우선 독자가 균질하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경험을 공유하는 독자가 있다면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도 있다.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독자의 공감을 논의한 3장 1절에서는 ‘단지’와 ‘그녀’의 발화를 다른 이의 증언과 연쇄를 이루는 또 다른 증언으로 이해함으로써 공감이 지닌 확인 행위와 발화 행위의 양면을 조명하고자 했고,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의 공감을 논의한 3장 2절에서는 ‘동일화하지 않는 공감’에 대해 살피고 이러한 공감이 경험이 공유될 가능성을 높이는 연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 논문의 논의가 독자의 ‘공감’을 다른 방식으로 되묻고 ‘공감’의 윤리와 일상툰의 정치적 가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 단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단지, 『단지 1』, 레진코믹스, 2015.  
\_\_\_\_\_, 『단지 2』, 레진코믹스, 2017.  
AJS, 『27-10 ONE』, 위즈덤하우스, 2019.  
\_\_\_\_\_, 『27-10 TWO』, 위즈덤하우스, 2019.

### 단행본

- 권김현영·루인·정희진·한채윤,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7-70쪽.



김애령, 『듣기의 윤리』, 봄날의박씨, 2020, 52-86쪽.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봄날의 책, 133-166쪽.  
 김유나, 『한국 일상툰의 풍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아서 프랭크, 서은경 역,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오카 마리,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역,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2016, 210-218쪽.

## 논문

구자준, 「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 재현-웹툰 <단지>와 <머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5호, 한국극예술학회, 2019, 71-98쪽.  
 김건형, 「일상툰의 서사 문법과 자기 재현이라는 전략-여성 일상툰의 정치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8, 121-160쪽.  
 류철균·이지영, 「자기 재현적 웹툰의 주제 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117-147쪽.  
 \_\_\_\_\_, 「형성기 한국 웹툰의 장르적 특질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44호, 우리문학회, 2014, 567-600쪽.  
 박인하, 「한국 웹툰의 변별적 특성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제11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82-97쪽.  
 조운숙, 「자전적 텍스트로서의 만화유형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4권 2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8, 195-211쪽.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툰의 아이러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3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469-502쪽.

##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Violence in Ilsangtoon and The Ethics of Sympathy  
 Park Jaeyeo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 patterns of daily violence in ilsangtoon (daily comics), focusing on *Danji* and 27-10; it also questions the sympathy of readers, who have been taken for granted in discussions on ilsangtoon. It seems that “everyday life” and “the reader’s sympathy” are two main elements that structure methods of reading ilsangtoon. Influenced by the “feminism reboo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elf-representation of everyday life have begun to be discussed in research on ilsangtoon. However, “sympathy” based on a “similarity of experiences” has never been questioned. The essay first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violence with the subject and self-representation in *Danji* and 27-10.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reader’s sympathy. This article notes that reader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groups: a group composed of those who share the experience of violence and a group who do not. The sympathy of readers who share experiences is a combination of discovering acts and speech acts within a circle of testimony. The sympathy of the other group of readers is explained as “not identical” and as taking responsibility for solidarit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stablish the ethics of “sympathy” and the political potential of ilsangtoon.

Key words: *Danji*, 27-10, ilsangtoon (daily toon), reader, sympathy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